

## 임진조국전쟁시기 일기유산의 사료적가치

### 목 명 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고전들은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민족문화를 체현하고있는 귀중한 민족유산이며 나라의 큰 재부입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3권 127페이지)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민족고전들에는 민족의 넓과 슬기가 깃들어있으며 외래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위훈을 떨친 우리 인민의 투쟁자료를 비롯하여 각이한 부문의 자료들이 전해져온다.

특히 간악무도한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낸 임진조국전쟁(1592—1598)에 대하여 기록한 민족고전들은 중세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연구에서 매우 귀중한 유산으로 되며 오늘날 인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반일계급의식을 높여주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임진조국전쟁이 중세 우리 민족사상 가장 규모가 큰 전인민적항전이었던것만큼 그에 대하여 기록한 민족고전들도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그가운데는 일기유산도 있다.

일반적으로 일기는 하루동안에 있는 일을 기록한 글이라는 뜻으로서 개별적인 사람들이 자연과 사회의 여러가지 현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대로 날자별로 기록한 글이다. 일기는 개별적인 사람이 자신의 사사로운 생활을 기록한것이면서도 그러한 생활이 펼쳐진 당시의 사회상, 시대상을 반영한 글이므로 여기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과 함께 해당 시기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생활풍습 같은것이 반영된다.

선조들이 남겨놓은 일기유산가운데서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씌여진 일기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근래에 민족고전으로서의 일기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일부를 번역출판하거나 소개연구하는 성과들이 이룩되었으나 임진조국전쟁현실을 반영한 일기유산을 독자적인 대상으로 삼고 연구를 심화시킨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서는 임진조국전쟁기간에 씌여진 일기유산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그 사료적가치를 밝힘으로써 우리 인민의 임진조국전쟁사를 보다 풍부히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임진조국전쟁기간에 씌여진 일기로는 《란중일기》(亂中日記), 《현은산일기》(玄殷山日記), 《쇄미록》(瑣尾錄)이 유명하며 그밖의 일기유산들도 적지 않다.

《란중일기》는 리순신(李舜臣: 1545—1598)이 임진조국전쟁기간에 쓴 일기로서 1795년에 편찬된 《리충무공전서》에 실려있다.

이 일기는 전쟁 첫해인 1592년의 1월 1일부터 마지막해인 1598년 11월 17일까지의 7년간에 저자가 남해안에서 활동한 내용을 쓴것이다.

이 일기책은 전쟁의 복잡한 환경과 우매한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저자가 옥중생활을 겪는 등 여러가지 우여곡절로 하여 일기를 잇달아 쓸수 없었으므로 여러번 중단되었고 빠진 곳이 군데군데 있다. 그러나 수군통제사로 활약하여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한 애국명장의

일기로서 리순신의 뛰어난 지략과 우리 수군의 맹렬한 활동 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어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수군사를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사료적가치를 가진다.

임진조국전쟁기간에 씌여진 일기책으로는 현적복(玄積福: 1521-?)의 《현은산일기》도 있다.

이 일기책은 저자가 4대에 걸친 자기 가문의 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1558년부터 1600년 12월 29일까지 43년동안 매일 쓴것이다.

《현은산일기》는 쓴 날자수와 해수로 보나 포괄기간으로 보나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방대한 일기유산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남긴 개인일기유산들중에서 제일 큰것의 하나로 손꼽힌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원본은 모두 합하여 18년간의것이며 6책으로 되어있다.

현적복은 대대로 황해도 연안에서 살아온 봉건량반출신으로서 80평생을 살았다. 《현은산일기》라는 책이름은 저자의 성에다 현감으로 있던 고을인 은산이라는 지명을 붙인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현은산일기》에서의 임진조국전쟁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5책(1595-1596, 1597)의 전부와 제6책(1598)의 일부분에서 4년동안 황해도와 평안도 등에서의 저자의 피난생활이 반영되어있다.

임진조국전쟁기간에 씌여진 개인일기책으로서 유명한것은 또한 《쇄미록》이다.

《쇄미록》은 한성에서 살아온 량반가문출신의 문인 오희문(吳希文:1539-1613)이 1591년 11월 27일부터 시작하여 1601년 2월 26일에 이르기까지의 9년 3개월기간에 걸쳐 써놓은 일기이다. 모두 7책으로 되어있으며 그가운데서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일기는 제1책부터 제6책까지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쇄미록》이란 《류랑기》 또는 《피난록》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친척을 찾아갔다가 왜적의 침략을 당한 저자가 란을 피하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들이 매일 날자별로 기록되어있다. 《쇄미록》은 임진조국전쟁기간 한성을 떠난 저자가 전라도와 충청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에서 피난생활로정을 따라가며 쓴 일기로서 시기별에 따르는 전쟁의 실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임진조국전쟁기간에 씌여진 일기책으로는 이밖에도 《류재행년기》(留齋行年記), 《손재일기》(遜齋日記), 《오리일기》(梧里日記), 《동계잡록》(東溪雜錄), 《란중잡록》(亂中雜錄), 《창의록》(倡義錄) 같은것을 들수 있다.

《류재행년기》는 의병장 리정암(李廷菴:1541-1600)이 쓴 일기이다. 모두 2권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리정암의 아들 리준이 임진조국전쟁기간에 쓴 일기인 《손재일기》가 부록으로 붙어있다.\*

\* 《고전문헌이름편람》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2.

사류재는 리정암의 호이며 《사류재집》은 그의 문집이다. 《사류재집》(10권 4책)의 8권에 《행년일기》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리정암이 죽기 1년전까지의 일대기를 년월일순서로 기록한것이다.\* 《류재행년기》는 리정암의 《사류재집》에 들어있는 《행년일기》와 같은것으로 볼수 있다.

\* 《《사류재집》에 대한 연구》(《민족고전연구론문집》 19 사회과학출판사, 2010.)

《오리일기》는 리원익(李元翼: 1548-1634)의 일기책이다. 임진조국전쟁시기 봉건정부의 높은 관료였던 리원익은 평양성방어와 탈환전투에 참가하였으며 1595년에 우의정 겸 4도

도체찰사가 되어 남도를 순시하면서 군사규률강화에 노력하여 전쟁승리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오리일기》는 오리 리원익이 전쟁이 일어난 해인 1592년부터 1615년까지의 24년 동안에 쓴 것으로서 4책으로 되어있다.

《동계잡록》은 우복룡(禹伏龍: 1547-1613)이 쓴 일기책으로 알려져있다. 우복룡은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난 해 6월 군사를 이끌고 상주에 기여든 왜적들을 공격한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의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전쟁시기 안동부사, 강원도판찰사 등의 벼슬을 지냈다. 그는 4권으로 된 일기책 《동계잡록》을 남기었는데 여기에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사실이 수록되어있다.

《란중잡록》은 지방관리이던 조경남(趙慶男: 1558-?)이 1592년부터 1638년까지의 기간에 있는 역사적사실을 기록한 일기책이다. 모두 11권과 부록 1권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여기에는 조경남이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의병장으로 활동한 내용과 그가 남원에서 살며 들은 소식, 남원읍관청에서 본 공문서 등이 실려있다.

의병장이었던 량대박(梁大樸: 16세기말)이 쓴 《창의록》은 《청계창의록》(靑溪倡義錄)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임진조국전쟁시기의 격문, 상소문들과 함께 저자가 쓴 종군일기가 수록되어있다.

이밖에 조헌의 《증봉조천일기》와 박동량의 《임진일록》 등에도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자료들이 일부 실려있다.

이상의 일기책들에는 저자들이 다년간 또는 수십년간에 걸쳐 체험한 구체적인 가정생활로부터 사회생활에 이르는 다종다양한 사실들이 수록되어있다. 그것은 대부분이 임진조국전쟁의 나날들에 있는 일들에 대한 기록인것으로 하여 16세기말 전쟁당시의 정치정세와 경제, 문화 등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다방면적인 자료들을 전해준다.

임진조국전쟁을 반영한 일기유산은 잔인무도하고 흉악한 일본침략자들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인민의 조국방위투쟁력사를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사료적가치가 크다.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일기유산이 가지는 사료적가치는 무엇보다도 조국강토에 기여든 왜적을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인 항전에 펼쳐나선 의병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있다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은 잔인무도하고 흉악한 일본사무라이들과 7년간이나 결사적으로 싸워 마침내 왜적을 조국땅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영예와 존엄을 지켰습니다.》(《김일성전집》 제1권 553페이지)

일기책들에는 일본침략자들의 날강도적인 무력침공과 전국각지의 전쟁형편, 이에 대처한 우리 군사와 인민들의 투쟁활동이 거의다 기록되어있다. 그가운데서 침략자들을 격멸하기 위한 의병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자료는 특별히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쇄미록》과 《란중잡록》, 《류재행년기》 등에서는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처하자 제 한목숨만을 건지려고 한성을 버리고 도망친 봉건통치배들의 죄행을 폭로하면서 왜적과의 판가리싸움에 나선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자료를 소개하고있다.

《쇄미록》 제1책 《임진남행일기》와 《임진일록》만 보더라도 전쟁기간 일본침략자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자료가 무려 50여건이나 수록

되어있다.

여기에는 임진조국전쟁시기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지방 인민들의 의병투쟁 사실들이 반영되어있으며 특히 경상도 의병장 박재우, 김면, 전라도 의병장 김천일, 고경명, 김덕령, 충청도 의병장 조헌, 심수경 등이 거느린 의병들의 애국정신과 용감한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있다. 1592년 8월 16일 충청도 안성에서 서민인 홍계남이 스스로 의병장이 되어 500여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왜적의 침략을 막아 싸운 사실과 이해 10월 23일 홍계남의 아버지인 홍자수가 역시 의병장이 되어 싸우다가 전사한 사실, 1593년 6월 29일 진주성에서 의병들이 왜적을 격멸하고 1597년 9월 2일 남원, 전주 등지에서 우리 인민들이 왜적과 싸운 사실들을 기록한것을 비롯하여 전민항쟁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더우기 《쇄미록》의 매 책 뒤부분에 부록형식으로 날자별로 첨부되어있는 왜적들을 반대하여 항전을 벌릴것을 호소한 의병들의 격문들, 기타 각종 공문서 등 58편의 글들은 《력대격문선》을 비롯한 다른 책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자료들로서 임진조국전쟁사 연구에 도움으로 된다.

《쇄미록》은 봉건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최하층인민들의 반침략투쟁사실도 소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의의가 크다.

지난날 외래침략자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반침략투쟁에서 언제나 희생성을 발휘하여 용감히 싸운것은 근로인민대중이었다. 봉건통치배들에 의해 씌여진 력사기록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전혀 무시되었으며 간혹 기록되는 경우에는 몹시 왜소화되었다.

《쇄미록》에서는 최하층인민들의 투쟁사실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로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지례산 산척들의 투쟁사실을 들수 있다.

《임진일록》의 1592년 7월 13일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7월 13일. 산속 바위아래에서 밤을 새웠다. 평남땅을 강점한 왜적들이 지례에서부터 련 3일간 무주로 넘어왔는데 장차 전주로 쳐들어갈것이라고들 한다. 운봉고을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의병들이 말을 타고와서 보고하기를 <왜적선발대 500여놈이 나타났는데 작은 기발 9개를 세우고 그뒤로 큰 기발 한개를 세웠다. 그들가운데 한놈은 소가죽으로 만든 가마를 타고 지나갔다. 이때 지례산 산척 43명이 요해지에 매복하고 두령 서인손이 먼저 화살을 쏘아 가마에 탄자를 명중하였다. 가마에 탔던자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적들이 영문을 몰라 당황망조해할 때 산척들이 한꺼번에 일제히 화살을 날렸다. 왜적들은 대다수가 중상을 당하였고 모두다 놀라서 뿔뿔이 헤쳐지고 달아났다. 사노비인 개이, 금동이, 명부 등도 힘을 합쳐 왜놈들의 목을 베었고 아울러 물품을 로획해서 날라갔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산척》은 당시 《화외지민》(국가의 통제밖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라고도 하고 《화적》이라고도 불리웠는데 봉건통치를 반대하여 투쟁을 벌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평시에는 산골에서 포수노릇을 하거나 약초캐기를 하였으나 침략자들의 침입을 당하자 의병대렬에 참가하여 중요한 역할을 놀았으며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류재행년기》에서도 연안성방어전투에서 결사전을 벌린 의병들과 백성들의 투쟁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일기에서는 리정암이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을 황해도 13고을에 보내고 각곳에서 모여온 사람들로 의병을 조직하던 과정과 당시 전국의 실패, 적들의 움직임 그리고 결사를

각오한 애국적군민들의 과감한 투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임진년 8월 28일 일기를 보더라도 《낮부터 밤까지 사방에서 조총소리가 울렸는데 천지를 뒤흔드는듯 하는 소리가 조금도 그칠줄 몰랐다. 대개 사람들의 혼을 빼서 맞서지 못하게 하려는 술책이었다. 나는 성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한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성을 지키며 화살 한대도 헛되이 쏘지 말도록 하였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성안의 남녀노소가 떨쳐 일어나 머리와 등에 가마와 돌을 이고 지고 개인집들의 대문과 울바자, 마루와 널판까지 걷어다가 방패를 만들었으며 백성들이 집집마다에서 술을 들어내다가 여려해동안 장만했던 새초로 불을 때어 물을 끓여가지고 적들의 머리위에 들썩우면서 밤새껏 성을 지켜 싸운 결과 적들이 감히 성밑에 접근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쓰고있다.

다음날인 8월 29일 일기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

《처음 왜놈들의 통사노릇을 하던 김선경이라는 사람은 왜놈들의 진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적들은 점령하지 못한 성이 없는 놈들이니 밤에 도망쳐 목숨을 보존하는것이 상책이다.>는 글을 보내왔는데 우리가 필사적으로 싸우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는 <적들의 탄환이 거의 떨어졌으니 며칠 안되어 퇴각하게 될것이다. 힘껏 싸워 성을 사수하라.>라는 고무적인 글을 보내어왔다. 그리고는 성밖에 떨어진 우리 군사들이 쏜 화살들을 모아다가 성안에 던져주었다. 몸은 비록 오랑캐놈들에게 붙잡혔어도 나라를 위한 마음은 알만 하다.》

이 부분은 우리 군사들의 결사적인 투쟁모습과 적들에게 포로되어 봉사하던 한 역관이 의병들의 투쟁에 고무되어 합세한 사실을 보여주고있다.

9월 2일 일기에 의하면 전투기간 우리 의병부대에서는 전사자 10여명과 부상자 수십명밖에 나지 않았지만 적들은 수백명의 사상자와 많은 군수물자를 빼앗기는 대참패를 당하였다고 한다.

후날 《류재행년기》를 읽은 김려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조정에서 큰소리를 치면서 영웅호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계책이나 한가지 생각도 내놓지 못하고 높은 관급을 차지하고 많은 록봉을 먹으면서도 의연히 부끄러운줄을 몰랐으나 의병을 일으켜 나라 위해 몸바친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무인과 하찮은 문신들로서 배척받고 등용되지 못하였던자들과 외로운 신하, 천한 서자로서 시름을 안고 우울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으니 아, 능히 강토를 보존하고 국권을 회복할수 있는것은 다행이었다.》\*고 의병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였다.

\* 《담정유고》 권10 《총서제후》

이러한 기록들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력사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일기유산이 가지는 사료적가치는 또한 뛰어난 지략과 적극적인 군사활동으로 왜적을 수세에 몰아넣은 리순신을 비롯한 애국명장들의 투쟁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있는데 있다.

《란중일기》는 임진년 1월부터 쓴 일기인것만큼 여기에서는 리순신장군이 전라좌수사로 임명되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거북선을 더욱 완성하고 함선들을 수리하며 군사훈련을 하는 등 적들의 침입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은데 대하여 보여주고있다.

《란중일기》에는 임진조국전쟁의 여러 단계에서 리순신이 발휘한 뛰어난 군사적재능과

우리 수군의 맹렬한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다.

리순신은 전쟁이 일어나자 주동적으로 경상도앞바다로 맞받아나가 적선들을 격파하고 왜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대표적으로 1592년 6월 5일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아침에 떠나서 고성 당항포에 오니 왜선 1척이 크기가 판옥선만 하고 배수에 루다락을 높다랗게 지어놓았는데 장수가 그우에 앉아있었다. 중배가 12척이요, 작은 배가 20척이였다. 한꺼번에 들이받아 깨뜨리면서 비오듯 화살을 쏘았더니 화살에 맞은자가 수없고 왜장의 목을 자른것만 모두 7급이였다. 그 나머지의 왜적은 룡지로 올라가서 달아났으나 본래 남아있는자가 아주 적었다. 우리 군대의 위풍을 크게 떨치였다.》

이것이 력사에 알려진 당항포싸움이다.

일기는 이날에 있었던 우리 수군의 혁혁한 전과를 싸움의 지휘자 자신이 바로 그날에 기록한것으로 하여 더욱 실감이 나고 의의가 있다.

《란중일기》에서는 임진조국전쟁 제1단계기간 옥포(거제도), 사천, 당포, 한산도, 부산포 등 해상에서 제해권을 장악하고 련전련승을 이룩함으로써 일본침략자들의 《수륙병진》계획을 파탄시키고 전쟁의 국면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데 대하여 긍지높이 기록하였다.

리순신이 지휘한 수군은 전쟁의 마지막단계에서 더욱 기세를 올리였다. 1597년 9월 16일 일기에서는 명량해협에서 아군이 수백척의 적선의 포위에 들어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던 정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군사들을 고무격려하면서 전투를 지휘한 리순신의 담력과 전술,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싸워 포위를 뚫고 적선 30척을 격파하여 적들을 전멸케 한 우리 수군의 투쟁을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리순신은 싸움때마다 거북선을 돌격전에 내세워 적의 전투서열을 허물고 여러가지 화포를 쏘아 적진을 짓부시는 특출한 전법을 써서 바다우에서 왜적을 섬멸구축하였다.\* 하여 1598년 10월 4일 일기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계속되는 전투에서 적의 무리들은 황급히 도망》을 쳤고 11월에는 아군이 일본침략군을 종국적으로 구축하고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 《조선단대사》 조선봉건왕조사 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0(2011). 139페이지

《란중잡록》에도 의병대와 관군이 각개로 혹은 련합작전으로 전쟁의 첫 단계에서 일본침략군에 대한 반격전을 벌린 사실, 정전기간 국내형편과 왜적의 침략적야욕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 등 력사적사실들이 적지 않게 실려있다. 실례로 이 책의 권1 《임진》(하)에는 경상도병마절도사 박진이 관내의 16개 읍성의 군사 1만여명을 집결시켜 경주성탈환을 시도하다가 패한 후 9월 7일 다시 대오를 수습하여 낮에는 성미를 뚫어 군대의 위엄을 보이고 밤이면 산봉우리에 화불을 벌려놓고 포를 쏘아 적들을 혼란케 함으로써 경주성을 강점하였던 적들이 끝내 성을 버리고 달아나게 하였으며 4백여섬의 식량을 획득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임진조국전쟁시기의 일기유산이 가지는 사료적가치는 또한 적강점지역에서 감행된 일본침략자들의 야만적행위, 그로 인한 혹심한 피해상과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실태를 반영하고있다는데 있다.

전쟁의 체험자들이 직접 쓴 일기들에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이 감행한 야

수적만행을 고발하는 자료들이 생동하게 수록되어있다.

《쇄미록》의 제1책과 제2책에만도 일본침략자들의 살인, 방화, 략탈, 파괴, 도굴, 강간 등 만행을 보여주는 기사가 20여건 수록되어있다.

임진조국전쟁 첫 단계기간 일본침략자들이 강점지역들에서 감행한 온갖 만행은 일찌기 동방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임진일록》 9월 24일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24일. ... 낮에 듣자니 적들이 도망쳐갈 때 옥천군에 불을 지르고 금산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또한 금산고을앞에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있는데 그 나무들마다 왜적에게 목을 잘린 우리 사람들의 머리가 무수하게 매달려있다고 한다. 그런데 썩어서 해골은 떨어지고 다만 머리카락들이나 혹은 망건들만 걸려있는것도 있다고 한다. 통분함을 이길수 없다...》

《임진일록》 10월 7일 일기 등에서도 개령과 선산, 성주, 인동, 상주 등 이르는 곳마다에서 민가들을 불태우다 못해 산속까지 수색하고 불을 지르며 인민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였을뿐아니라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잡아서 마소와 같이 부려먹고 수많은 녀성들과 로력자들 특히 수공업자들을 제놈들의 나라로 끌어간데 대하여 수록하고있다.

《임진남행일기》의 6월 22일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또 듣자니 왜적들은 령남땅의 선비집안 녀자들가운데서 고운 녀자들을 골라서 5척의 배에 가득 실어 먼저 제놈들의 나라로 보내였는데 그들에게 머리를 틀어올리고 얼굴에 분을 바르고 눈섭을 그리게 하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뜸 성을 내기때문에 다들 죽음이 두려워 억지로 그렇게 하였다고 한다. 사실 그들은 모두다 먼저 강간을 당한 녀인들일뿐이다. 그놈들의 행위에 항거한 나머지녀인들은 왜적들이 무리로 달려들어 돌려가며 강간했다고 하니 슬프고 통탄할 노릇이다.》

이러한 자료는 일본침략자들이 4백수십년전부터 조선녀성들을 랍치하여 성폭행을 가하고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준 잔인무도하고 극악한 철천지원썩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증거로 된다.

《쇄미록》, 《현은산일기》와 같은 피난민의 일기들에는 전란으로 인한 혹심한 피해와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들도 있다.

《쇄미록》의 1593년 5월 8일 일기에는 왜적들이 한성을 강점하고 성안의 세 대궐과 종묘, 문소전과 연은전을 불태웠으며 선릉, 정릉, 강릉, 태릉, 현릉 등 왕의 무덤들을 도굴하였으니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의 통분함은 이루 다 말할수가 없다고 썼다. 《현은산일기》에서도 임진조국전쟁의 휴전기간의 국내형편을 생동하게 전하면서 저자가 1595년 5월 18일 평양을 지나면서 직접 목격한 일본침략자들의 야만적인 파괴와 략탈만행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쇄미록》에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실태를 여러 측면에서 생동하게 보여주는 사실자료들이 30여건에 달한다. 대표적실례로 《쇄미록》(《감오일록》 2월 14일)에는 길가에서 굶어죽은 사람의 시체에 거적때기를 씌워놓고 그옆에 두 어린애가 앉아서 울고있는 참상, 굶주림을 당하여 더부룩한 머리에 때깎인 얼굴로 남부녀대하여 늙은이들을 부축하고 어린아이들의 손목을 잡아끌며 정처없이 류랑하는 사람들의 처량한 모습을 보며 통탄하는 저자의 심정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일기책들에 반영된 이러한 사실자료들은 다른 옛날책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기록으

로서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이 일시적강점지역들에서 감행한 살인방화와 략탈과 피만행, 혹심한 전쟁피해와 도탄에 빠진 인민들의 생활형편의 일단을 현지에서 목격한데 근거하여 생동하게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임진조국전쟁사연구에 의의있는 자료로 된다.

임진조국전쟁현실이 반영된 일기유산은 저자들 자신이 전쟁의 직접적인 참전자이거나 체험자이며 국가적인 편찬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기글이라는 측면에서 《선조실록》, 《징비록》과 같은 력사책들에 없거나 부족한 귀중한 력사자료를 제공해주며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을 임진조국전쟁과 관련한 력사기록들과의 호상련관속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해보면 전쟁형편을 더욱 풍부하고 생동하게 파악할수 있게 하여준다.

임진조국전쟁시기의 현실을 반영한 일기책들에는 지배계급의 립장과 봉건유교도덕에 기초한 충군사상, 관료들의 사생활 및 허황한 꿈에 대한 관념론적해석을 한 대목들이 서술되어있는 적지 않은 부족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기유산들은 다른 옛날책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구체적이고 희귀한 력사자료들을 제공하여줌으로써 당대의 시대상을 폭넓고 다양하게,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가치있는 민족고전으로 된다.

실마리어 란중일기, 현은산일기, 쉐미록